

유예된 주거: 중국의 건설노동자와 농민공 주거의 재생산*

정해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

본 논문은 중국 톈진시 교외의 한 계획신도시에서 수행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농민공 집단의 열악한 주거조건이 재생산되는 복잡한 과정을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은 도시지역에서 농민공들의 주변화된 위치가 주거조건에도 반영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호구체계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해당 신도시에서는 농민공들의 주거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공기숙사를 공급해 왔지만 외부의 열악한 주거장소는 유지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농민공들의 존재 상태이자 삶의 전략인 유예가 이들의 열악한 주거조건이 재생산되는 중요한 기제라고 주장한다. 높은 이동성을 바탕으로 단기체류와 순환 이주를 반복하며 일상적인 삶을 유예해 온 건설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이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은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건설업의 기숙사노동체제가 구현하는 노동력 사용의 극대화와 효과적인 일상적 재생산은 건설노동자들에게도 합숙소의 조건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건설 붐을 뒷받침해 온 중국 국가의 토지중심 발전 전략은 건설노동자들이 도시주택의 소유권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유예 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중국 건설노동자, 농민공 주거, 유예, 기숙사노동체제, 토지중심 발전

I. 머리말

중국 톈진시 교외에 위치한 계획신도시 그린타운¹에서 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생활하는 합숙소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막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은 각자의 철제 이층침대에 앉아 전기냄비를 이용해 식은 밥을 데우고 채소를 볶으며 저녁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다. 침실 두 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된 아파트 주택이지만 내장공사가 안 된 상태였다. 바닥은 시멘트로만 마감되었고 방문과 세면대도 달려 있지 않았

* 이 논문은 연구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5장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¹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명과 인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한다.

다. 주방으로 설계된 공간에는 배관이 드러나 있을 뿐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식재료를 손질하는 장소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에서는 어둠 속에서 한 노동자가 머리를 감고 있었다. 흔히 집단임대주택(群租房)으로 불리는 이 합숙소가 자리한 곳은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로, 이 단지에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2,00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거주해 왔다.

녹색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표방해 온 그린타운은 초기 계획면적 30km² 중에 4km²만이 산업에 할당되었을 정도로 주거중심 신도시의 성격이 강하다. 제조업과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개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건설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신도시에서 건설노동자는 주요한 농민공(農民工) 집단이었다. 그린타운 정부는 초기부터 건설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기숙사인 건설아파트(建設公寓)를 별도로 건설하여 공급해 왔다. 중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공사현장(工地)에 임시로 마련된 가건물(工棚) 형태의 합숙소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의 주거조건은 열악하기로 유명하다(元昕, 2011: 51). 건설아파트는 중국 건설업의 이 오랜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농민공들의 주거조건 개선과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그린타운 정부의 공공기숙사 공급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합숙소는 물론 앞서 집단임대주택처럼 외부의 주거장소는 유지되고 있었다.

본 논문은 건설노동자의 관점에서 이 외부의 열악한 물질적 주거조건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도시지역에서 농민공 집단의 주거는 연구자들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다(Huang and Tao, 2015; 陆文荣·段瑶, 2019). 기존에는 성중촌(城中村)과 도농접경지역(城乡结合部)의 농민공 밀집지구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면, 최근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주목하고 있다. 밀집지구 재개발이 빈번해지면서 이동성이 보장되는 컨테이너주택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부상하였다(Ling, 2021). 일자리 기회를 위해 도심에 보다 가까운 사무실이나 아파트 건물의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농민공들도 증가하였다(Huang and Yi, 2015). 연구자들은 도시지역에서 농민공 집단의 주변화된 위치가 이들의 취약한 주거조건에도 반영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호구제도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도시지역에서 농민공들이 공공주택 같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

은 한계를 지적해 왔다(刘梦琴·傅晨, 2013). 이와 달리 공공기숙사 공급에도 외부의 열악한 주거장소가 유지되고 있는 그린타운의 사례는 농민공 주거조건의 재생산 기제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 도시지역에서 농민공 집단의 주거는 크게 사적 임대와 고용주의 제공이라는 두 경로로 이루어져 왔다.² 사적 임대는 성중촌의 사례처럼 개인이나 소수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이용해 직접 주거장소를 마련하는 형태다. 반면 경제개발구나 산업단지, 작업현장 등에 마련된 합숙소는 고용주가 주거를 책임지는 형태다. 중국에서 건설업은 제조업, 중공업과 함께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해 온 대표적인 산업영역이다(Huang and Tao, 2015: 641). 이 주거형태와 관련한 의미 있는 분석들 중 하나는 기숙사노동체제(dormitory labor regime)다. 1980년대에 연해지역의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확산된 공장기숙사 사례를 통해 이론화된 이 개념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통해 실천되는 노동력의 관리 과정을 포착해 왔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단기고용 이주노동력의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통합되고, 노동력 사용과 일상적 재생산의 영역이 결합되는 과정에 있다(Smith and Pun, 2006; Pun, 2016: 83-104; 黄岩·朱少瑞, 2021).

본 연구는 기숙사노동체제가 건설업에서도 실천되어 왔으며, 그린타운의 사례에서 공공기숙사 공급에도 외부의 열악한 주거장소가 유지되는 중요한 기제라고 주장한다. 다만 기존의 기숙사노동체제 연구에서 전제해 온 통제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은 농민공들의 다양한 경험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숙사노동체제가 구현하는 노동력 사용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일상적 재생산은 건설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합숙소의 조건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이러한 대응과 주거 실천을 유예(suspension) 개념으로 설명한다. 상바오(Xiang, 2017, 2021)의 개념에서 유예는 특정의 목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상적인 삶을 유보하면서 현재를 임시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구정착 가능성이 있

² 2013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연구(陆文荣·段瑶, 2019)에 따르면 사적 임대가 48%,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거주는 36.39%를 차지한다. 이 밖에 직접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17%,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는 이주민들과 달리 건설노동자처럼 높은 이동성과 순환 이주가 특징인 단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유예는 존재의 상태이자 삶의 전략이 되어 왔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집중적으로 강노 높은 노동을 수행하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일상적인 삶을 유예해 왔다. 상박오는 중국 사회에서 유예가 이주노동력이 조직되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은 유예가 도시지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주거가 재생산되는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 주고자 한다.

중국에서 건설업은 개혁개방과 함께 가장 빨리 체제개혁을 단행한 산업영역 중 하나로 1980년대부터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 왔다(Pun and Xu, 2011). 전체 농민공 중에 20%가량이 건설업에 종사해 왔으며, 건설노동자의 90% 이상이 타지역 출신의 외지 농민공이다(元昕, 2011: 29-37).³ 그린타운 내 건설현장의 일선 노동자들 또한 대다수가 쓰촨성, 허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에서 온 30~50대 연령층의 외지 농민공이었다.

농민공 연구의 방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 집단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중국에서 건설 붐이 확대되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대두된 것이 주요한 계기였다(Pun and Lu, 2010a). 이에 연구자들의 관심은 개혁기 중국의 건설업을 특징짓는 요소이자 임금체불의 요인으로도 간주되었던 노무 도급제도(包工制)와 비공식 고용에 집중되어 왔다(潘毅 外, 2009; 任焰·贾文娟, 2010; Pun and Lu, 2010b; Swider, 2015). 건설생산에서 도급제도는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특유의 도농이원구조를 배경으로 중국 건설노동자들의 경험을 특수하게 만들어 왔다. 도급반장(包工头)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실천되는 노무 도급제도는 건설업의 기숙사노동체제와 건설노동자들의 이동성 또한 뒷받침해 왔다.

중국 건설노동자 연구의 또 다른 배경은 확대된 토지개발에 따른 이주노동체제의 변화이다. 2000년대 이래 확대되어 온 중국의 토지개발은 개혁 초기의 노동집약적 발전에서 토지중심 발전으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의 발전전략 변화

³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2021년 농민공 현황조사 보고(2021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따르면 농민공 인구는 총 2억 9,251만 명으로, 이 중에서 외지 농민공은 1억 7,172만 명을 차지한다. 전체 농민공 인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를 배경으로 한다(Chuang, 2020: 10). 농촌 잉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주요한 축적수단이 값싼 농촌 노동력에서 값싼 농촌 토지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Chan and Wei, 2019). 기존에 노동집약적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은 중국 특유의 이주노동체계이다. 농민공들은 농민 신분으로서 고향 마을의 집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이주노동에 종사해 왔다. 토지와 연계는 많은 농민공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와 낮은 임금에도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贺雪峰, 2017).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농민공 집단 중에서도 토지와 연계가 강한 편이다(任焰·陈菲菲, 2015). 이에 최근 연구들은 확대된 토지개발이 건설노동자 집단의 이주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줄리아 추앙(Chuang, 2020)은 토지개발로 농업을 통한 생계보조는 물론 노동시장 참여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사례를 보고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의 발전전략 변화는 유예의 새로운 조건으로도 경험되고 있었다.

본 논문은 2017~2018년 기간에 16개월간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시의 교외에 위치한 계획신도시 그린타운에서 수행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건설노동자의 주거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임대주택과 건설아파트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집단임대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주거단지는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재정착주택 단지였다. 그린타운 개발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농민들에게 지방정부가 재정착주택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농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주택을 건설노동자들에게 임대하여 부가소득원으로 삼아 왔다. 12~16층 높이의 아파트 주택 8개 동, 400여 호로 구성된 이 주거단지에서 건설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을 때에는 100여 호가 집단임대주택으로 사용되었다. 각 집단임대주택에는 10~20명의 노동자들이 거주해 왔다. 이 주거단지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30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II. 건설노동자의 이동성과 토지와 연계

건설노동자들의 높은 이동성은 일차적으로 건설시공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일한다(哪里有活哪里干)”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건설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을 돌며 작업한다. 시공 작업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공종별로 분업화되어 있어서 각 시공팀은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건설현장으로 바로 이동한다. 한 도시지역에서 짧게는 3개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을 머물 뿐이다. 한 지역에서 2~3년을 일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고향 마을과 건설현장을 여러 차례 왕복하게 된다. 바로 일감이 없을 때에도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 다음 작업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건설 산업은 원자재 수급상황이나 계절성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유동성이 크다. 특히 지역마다 기간은 상이하지만 3~6개월간의 동절기 건설공사중지 기간에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된다. 고향에서는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그냥 쉬기도 하지만 마을 인근에 공장 등의 다른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일하거나 가족의 농사일을 돕기도 한다.

다른 직종의 농민공 집단과 비교해 건설노동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농촌 지역과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과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순환 이주가 빈번하다는 점이다(Pun and Lu, 2010b). 개혁개방 이래 1990년대까지 순환적인 노동이주는 농민공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고향 마을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감이 없을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이주노동 형태는 농촌 인구에게 토지 권리를 보장해 온 호구체계와 토지의 농민집체(农民集体) 소유권으로 뒷받침되어 왔다. 최근 연구들은 개혁 초기와 달리 농민공들이 일터가 있는 도시지역에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거나 도시지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시선도 농민공의 이동성에서 정착의 문제로 이동해 왔다(Cho, 2009; Zavoretti, 2017). 하지만 중국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순환 이주는 여전히 중요한 생계전략이자 삶의 방식이다.

특히 경작활동을 위한 순환 이주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고향 마을로 돌아가 농사일을 돕고 건설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린타운에서 만난 건설노동자들 중에는 분배 받은 토지를 가족에게 맡기거나 이웃에게 세를 주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경작활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았다.⁴ 집단임대주택에서도 수확기가 시작되면 건설노동자들의 수가 확연히 줄었고 수확기가 끝나면 다시 증가하였다. 2018년 7월에 집단임대주택에서 만난 허난성 푸양시 출신의 내장공인 40세 남성 은 경작활동의 지속을 농민공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3월에 그린타운으로 왔는데 외곽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잠깐 고향에 가서 밀을 심고 왔어요. 돌아와서는 6월부터 이(집단임대주택) 근처의 공사현장에서 일해요. 9월에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옥수수를 심고 올 예정이에요. 농민공은 농민이잖아요.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죠.

건설노동자들의 높은 이동성은 건설시공에 대한 국가의 규제 활동이 만들어 낸 효과이기도 하다. 건설시공으로 야기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방정부가 수시로 내리는 공사중지명령(停工令)은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톈진시에서 전국체전(全运会)이 개최되면서 그린타운에도 한시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연이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데다 바로 동절기 건설공사중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8월에 일제히 고향으로 돌아갔던 건설노동자들은 다음 해 2월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고향으로의 잦은 회귀에는 해당 도시지역에서 농민공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도시의 지역시민권 체계 또한 영향을 미쳐 왔다.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주거등록(居住登记)은 노무회사나 도급반장이 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수거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이 보장은 작업기간으로 한정된다. 건설노동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주거권리에 대한 보장도, 안정된 주거지와 연고도 없는 외지에 일감도 없이 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⁴ 농번기 때 고향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남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 출신의 건설노동자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건설노동자들의 순환 이주는 가족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후베이성 우한시 출신의 25세 남성 루양은 철근공으로 부모와 함께 집단임대주택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생활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루양의 부모는 줄곧 외지에서 일해 왔지만 루양까지 건설노동에 합류한 이후에는 매번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같은 숙소에 머물며 작업을 해 왔다. 루양은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 광저우시에서 1년여 간 햄버거와 치킨을 파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그만두고 건설 일을 시작하였다. 루양의 관점에서 건설노동은 공장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고 자유롭다. 실제로 농민공 집단 중에서 건설노동자는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⁵ 공사 직종과 숙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당 300~400위안을 받는다.

랴오닝성 차오양시 출신으로 철근공으로 일하는 43세 양원과 아내, 갓 스무살이 된 아들로 구성된 세 가족 또한 집단임대주택에 머물며 매일 함께 출퇴근을 하였다. 양원은 16세 되던 해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지만, 양원의 아내는 얼마 전까지 다니던 고향 마을 인근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합류하였다. 공장의 월급이 건설노동자 한 달 수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양원의 아내는 전에도 가끔씩 양원을 따라 철근공으로 일해 왔다. 건설업의 일선 노동자들은 90% 이상이 남성이지만 여성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부부가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이고, 대개 허드렛일이나 보조를 담당하는 비숙련공(小工)으로 일한다(元昕, 2011: 30).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양원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건설 일을 시작하였다. 양원의 가족에게는 고향 마을에 총 7무(亩)의 토지가 있지만 경작을 통한 연소득은 1만 위안에 불과해서 주요한 생계수단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토지는 부모에게 관리를 맡기고 온 가족이 외지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양원은 가족이 모두 외지에 나와 있어 집이 없는 느낌이지만 함께 벌어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린타운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이 가족은

⁵ 국가통계국의 2021년 농민공 현황조사 보고에서 조사된 업종을 기준으로 농민공의 월평균 수입은 교통운수업 다음으로 건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타운의 또 다른 주요한 농민공 집단인 조경노동자(園林工人)의 임금이 일당 100~200위안인 것에 비해서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고소득에 해당하였다.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III. 건설아파트와 기숙사노동체제

1. 건설노동자의 주거와 건설아파트

도시지역에서 중국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공사현장의 합숙소다. 공사현장 내부나 인근에 많게는 수백 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구역(生活区)이 마련된다. 생활구역은 숙소와 식당, 상점,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다. 숙소는 컨테이너주택 형태의 합판으로 지어진 조립식 간이건축물로 단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층침대로 채워진다. 식당은 대개 건설회사나 노무회사(劳务公司) 관계자와 연줄이 있는 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취사가 금지되어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한다. 상점에서는 치약과 비누, 담배, 술 같은 일상적인 소비품을 판매한다. 지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건설노동자들은 일상용품 또한 대개 이곳에서 구매한다. 공사현장 생활구역의 이러한 구성은 그린타운의 건설아파트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다.

건설아파트는 중국 건설업의 오랜 관행인 공사현장의 주거형태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되었다. 초기에는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었고, 이후에 1만 5,000명 수용 규모의 2차 건설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그린타운 정부가 내세워 온 건설아파트 공급의 주요한 목적은 건설노동자의 주거조건과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개별 공사현장에 분산되어 오던 생활공간을 집중시키고 주거장소를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거점으로 종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와 여가오락, 휴식, 식사, 소비 등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1차 건설아파트는 중국 내에서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시범적인 성격이 있었다.

물론 개발 초기에는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대규모로 유입될 건설노동자들을 즉시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따라서 건설아파트는

그린타운 내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공공건축물이었다. 이와 함께 농민공 집단을 주민 주거구역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집중관리(民工集中管理)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시공관리(施工管理)의 일부로도 간주되었다. 공사현장 내부에 함께 자리해 온 건설시공 장소와 노동자들의 주거장소를 분리하여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규범화하고, 생산현장과 생활공간의 근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명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제시되었다. 즉, 건설아파트의 계획에는 인구관리와 생산관리, 안전관리라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주거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건설아파트가 계획되던 시점은 중앙정부가 농민공의 주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2006년과 2007년에 중앙정부는 잇따라 관련 의견⁶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농민공의 주거조건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주거조건 개선과 함께 농민공 대상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刘梦琴·傅晨, 2013; Huang and Tao, 2015; Huang and Ren, 2022).⁷ 그 방편 중 하나로 농민공 인구가 집중되는 경제개발구와 산업단지 등에서는 지방정부가 일괄적으로 숙소를 건설하여 공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사실상 이러한 주거공급 형태는 수출주도 산업화 초기인 1980년대에 등장하였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해 온 것이다. 즉, 그린타운의 건설아파트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농민공아파트(民工公寓)나 농민공집단숙소(民工集体宿舍), 블루칼라아파트(蓝领公寓)와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농민공들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Smith and Pun, 2006; Ren and Pan, 2009). 첫째는 지방정부가 건설하여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기숙사다. 둘째는 기업이 공장부지 내부에 기숙사를 직접 건설하거나 공장 인근의 건물을 구매해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업이 지역민으로부터 상품주택(商品房) 등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

⁶ 2006년에 국무원(国务院)이 공표한 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解决农民工问题的若干意见(国发[2006] 5号)). 2007년에 건설부(建设部) 등 5개 중앙부처가 내놓은 농민공 주거조건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改善农民工居住条件的指导意见(建住房[2007] 276号)).

⁷ 2014년에 국무원이 내놓은 농민공 대상의 공공서비스 업무 강화를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为农民工服务工作的意见(国发[2014] 40号)).

유형들을 그린타운에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에 대입해 보면 첫 번째 형태는 건설아파트, 두 번째는 공사현장의 생활구역, 세 번째는 집단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건설아파트 또한 고용주가 인원 수만큼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여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숙사 형태의 숙소인 만큼 공간 구조는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통해서만 건설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다.

개별적인 단지를 이루는 2차 건설아파트는 학교 건물 같은 3층 높이의 숙소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지 내부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몇 곳과 슈퍼마켓, 잡화점, 약국, 전자기기 상점 등이 자리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로 독서실과 영상실, 체육시설이 제공되었다. 숙소 건물의 각층에는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세탁실이 마련되었다. 각 호실의 구조는 농민공들의 다른 합숙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쪽 벽면에 철제 이층침대가 3개씩 배치되어 최대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다만 특별히 거주인원이 많지 않다면 보통 6명이 생활하고 이층침대 위 칸은 개인물품을 놓아 두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양쪽 침대를 사이에 두고 중간에는 공용 테이블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선풍기 3~4대가 설치되었다.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창문이 유난히 크고 넓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었고, 중앙난방이 제공되는 방열기도 설치되었다. 호실 내부는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정리정돈 상태는 각 호실마다 달랐지만, 복도나 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관리회사(物业公司)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다.

각 동 1층 출입구에는 거주자가 준수해야 할 ‘건설아파트 임대거주 문명공약(租住文明公約)’이 부착되어 있었다. 절수와 절전, 공용시설 보호 같은 지침은 물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공공위생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매일 침대와 개인물품을 정돈하고 샤워와 세탁을 성실히 할 것을 규칙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전기 사용 규칙이 특별히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사적으로 전선을 끌어 오거나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규칙들을 나열하였다. 실제로 각 호실 내에는 전기콘센트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전기주전자 등의 전기제품 사용은 물론 휴대폰 충전도 불가능하였다. 대신 휴대폰 충

전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하루 3번의 개방 시간을 정해 놓고 있었다. 각 호실은 물론 건물 내부에서 취사도 금지되었다. 전기사용이 생활을 통제하는 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 노무 도급제와 기숙사노동체제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건설아파트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공사현장 숙소나 집단임대주택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다. 하지만 건설아파트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활공간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의도하지 않게 외부의 주거장소가 유지되는 데에 기여해 왔다. 본 연구는 그 주요한 기제가 중국의 건설업에서 실천되어 온 기숙사노동체제라고 주장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통해 실천되는 공간정치 형태인 기숙사노동체제의 핵심은 생산공간 내부나 인근에 생활공간이 위치하면서 노동력의 사용과 일상적 재생산이 연계되는 과정에 있다 (Pun, 2016: 83-104).

고용주의 숙소 제공은 흔히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노동력의 이동성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와 다른 기숙사노동체제의 특징은 노동력의 높은 이동성과 순환성을 뒷받침하는 능력에 있다. 즉,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나 노동력의 장기적인 재생산을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적인 재생산을 관리하면서 노동시간 연장 등을 통해 단기간 고용된 노동력의 사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Smith, 2003; 任焯·潘毅, 2006; 李君甫·许多, 2018). 이러한 측면은 일터와 주거가 결합되었던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단위체제와도 구별된다. 단위체제가 고용이 안정된 도시 노동자들을 위해 의료와 교육 등 각종 복지혜택이 결합된 형태였다면, 기숙사노동체제는 주로 도시의 지역시민권에서 배제된 외지 농민공 집단을 대상으로 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기숙사노동체제는 농민공이라는 유동인구를 통해 도시발전을 꾀하면서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인구 집단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필요에도 부합해 왔다(Ren and Pan, 2009).

건설업에서 기숙사노동체제는 공사현장의 숙소를 통해 구현되어 왔다. 건설 노동이 이루어지는 시공현장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구역이 한 울타리

안에 배치되면서 보다 수월하게 노동력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任焯·贾文娟, 2010). 실제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높기로 유명하다. 그린타운의 건설노동자들 또한 오전 6~7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한 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야간근무를 하러 숙소를 나서는 이들이 많았다. 건설아파트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공사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노동체제를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건설아파트는 그린타운 내에서도 허허벌판에 가까운 외곽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외곽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공팀 외에는 기숙사노동체제를 구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건설현장이 보다 중심지구 에 위치해 있다면 공사현장 다음으로 집단임대주택이 주거장소로 고려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차 건설아파트는 본래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상품주택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외곽으로 밀려났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이주노동을 뒷받침해 온 노무 도급제도는 크게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혈연과 지연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유사 인력시장을 통해 노동력을 모집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노동력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도급반장은 이 두 과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층층으로 구성된 하도급 체계에서 말단 도급반장은 흔히 상위의 도급반장이나 노무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건설노동자를 모집하고 관리한다. 도급반장은 스스로도 농민공으로 자신이 고용하는 건설노동자와 같은 마을 출신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동향인 경우가 많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즉, 도급반장들은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을 모집할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생산 과정은 물론 주거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건설노동자의 숙소는 건설회사와 계약된 노무회사나 도급반장이 마련하여 제공한다. 중국 건설업에서 파편화된 농민공 노동력의 사용과 일상적인 재생산은 이 도급노동체제에 의존해 왔다(任焯·贾文娟, 2010).

다만 그린타운에서 만난 건설노동자들은 반드시 고향 마을의 사회적 관계나 하나의 도급반장에만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급반장과 노동자의 관계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실천을 통해서도 형성되어 왔다

(郭宇宽, 2011; 任树正·江立华, 2017). 반드시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동자들 또한 대개 일감이 있으면 연락해 오는 도급반장이 여럿 있었으며, 10여 명에서 스무 명이 넘는 도급반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함께 일해 온 도급반장이 수주해 오는 일감이 많지 않거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임금 수준과 작업 일정 같은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도급반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집단임대주택에서 만난 한 노동자는 다른 도급반장에게 들어온 작업 제안을 받아들일지 한참을 고민하였다. 건설현장이 위치한 도시지역의 날씨가 너무 더워 꺼려진다는 이유였다.

내가 이끄는 목공(木工)은 10여 명이고 모두 나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예요. 나는 음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서(管饭管住) 밥을 해 주는 사람도 따로 두고 있어요. 식사를 제공하면 일당은 조금 적게 줘요. 숙소는 보통 노무회사(劳务公司)에서 제공해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노무회사가 마련해 준 공사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숙소를 구해서 제공하게 됐어요. 월세와 수도세, 전기세도 직접 내고요. 우리가 작업하는 공사현장이 여기(집단임대주택)에서 길만 건너면 바로거든요. 노무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면 작업비를 정산할 때 그 비용을 제하고 줘요. 이번에는 작업비에 숙소비용을 포함해서 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이 숙소는 내가 직접 구했으니 당연히 더 마음에 들죠.

허베이성 한단시 출신으로 자신도 목공이면서 10여 명의 목공을 이끄는 40대 후반의 도급반장 저우차이 또한 집단임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로 일터와의 거리를 꼽았다. 얼마 전까지 노무회사가 배정해 준 공사현장의 생활구역에서 거주하였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주거장소를 선택하고 집주인과 계약하여 월세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물론 도급반장이나 노무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사현장과의 거리뿐 아니라 비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건설아파트에서 노동자 1인당 1개월의 임대료가 300위안이라면 10명으로 구성된 작업팀은 건설아파트에서 매월 3,000위안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집단임대주택에서는 이보다 2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같은 규모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건설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일터인 공사현장에서 멀고(远), 비싸다(贵)는 것이었다.

제조공장의 기숙사노동체제에 주목해 온 기존 연구들은 고용주의 일상적인 통제와 노동자들의 저항을 강조해 왔다(Smith and Pun, 2006).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일터와 주거장소의 근접성을 토대로 일상적 재생산을 관리하여 노동력 사용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개입해 왔다. 여기에는 주로 건설노동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휴식은 중요한 요소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일터와 가까운 것이 휴식시간을 조금 더 길고 편하게 보내는 방법이었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작업장과 가까운 공사현장의 숙소를 선호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또한 건설업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비라도 오면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은 하루를 허탕 치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할 때 최대한 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간당 20~30위안의 추가수당을 벌기 위해 야간작업까지 감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합숙소의 위생 상태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은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강화된 도시안전 관리는 그린타운에서 집단임대주택이 유지되는 데에 기여해 온 또 다른 요인이다. 2018년부터 톈진시에서 안전생산(安全生产)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사현장 내에 생활구역 설치가 금지되기 시작하였다.⁸ 이는 저우차이의 작업팀이 공사현장을 떠나 외부의 집단임대주택을 임대하게 된 이유였다. 이 행정조치의 배경은 생산현장과 생활공간 간의 근접성이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데에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사회에서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사현장 내 생활구역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고, 이는 그린타운에서 건설아파트가 계획되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이 관행이 줄곧 묵인되다가 규범이 마련되고 감독이 강화되면서 공사현장의 숙소가 강제로 철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저우차이 같은 도급반장만이 아니라 노무회사들 또한 직접 집단임대주택을 임대하여 건설노동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 강화된 안전관리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다. 2017년 11월 18일에 베이징시 파싱구의 농민공 밀집지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여파가 톈진시

⁸ 2017년 12월에 톈진시의 건설위원회(市建委), 계획국(市规划局), 국토주택관리국(市国土资源局)이 공동 발표한 주택건설 안전과 관련한 공고(关于房屋建筑安全有关事项的公告).

에도 미친 것이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화재사고 이후에 베이징시 정부는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농민공 밀집지구와 비공식적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철거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윤종석, 2017; Morris, 2022).⁹ 그린타운에서 이 화재사고는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도 재현되었다. 2018년 1월에 지역 소방서가 그린타운의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지식강좌는 베이징시 따싱구의 11·18 화재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보관창고와 생산,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1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사진과 함께 사상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연령과 성별뿐 아니라 호구 정보(戶籍情況)를 제시하였다. 산둥성 4명, 허난성 4명 등으로 2명의 베이징시 현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인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농민공이나 ‘하층인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례들과 달리 외지인의 존재를 강조하며 호구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안전문제와 농민공 집단을 연결지어 연상할 여지를 제공하였다.

IV. 건설노동자의 유예된 주거

1. 집단임대주택의 재생산

숙소를 임대할 당시에 (집단임대주택이 자리한) 이 주거단지에 내장공사가 안 된 미완성 주택(毛坯房)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되어 있는 주택 중에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두 집 모두 6개월 계약에 월세 2천 위안으로 가격도 같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내장공사가 안 된 집을 빌렸어요. 농민공들에게는 그런 집이 적합해요. 함께 사는 인원 수가 많다 보니 벽지나 문 같은 것들이 훼손되기 쉬운데, 그럼 돈으로 물어줘야 하거든요. 농민공들은 본래 더럽기도(脏) 하고요.

⁹ 2017년 11월 19일에 베이징시 안전생산위원회(北京市安全生产委员会)가 발표한 잠재적인 안전 위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리, 정비를 위한 특별 행동 전개와 관련한 공지(关于开展安全隐患大排查大清理大整治专项行动的通知).

공사현장의 생활구역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숙소를 구해야 했던 도급반장 저우차이는 월세 가격이 같았음에도 일부러 내장공사가 안 된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완성 주택의 월세 가격은 일반 주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택의 상태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저우차이의 선택에는 건설노동자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농민공은 본래 더럽다”는 저우차이의 표현에는 다른 건설노동자들도 동의하였다.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는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다 온몸이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돌아오는 데다 피로 때문에 쓸고 닦으며 숙소를 정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반 주택은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였다. 물론 주거를 책임지는 도급반장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단채로 거주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으로 주택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행여나 파손이라도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그린타운에서 비교적 장기간 작업을 해 온 노동자들은 공사현장과 건설아파트, 집단임대주택 모두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은 그중에서도 내장공사가 안 된 집단임대주택을 “이 정도면 깨끗하고 살기에 괜찮은” 주거 장소로 평가하고 있었다. 가건물이 아니라는 점은 공사현장의 숙소와 비교하여 큰 장점이었다. 컨테이너주택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데다 더위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회사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선풍기 2~3대로 한 낮의 열기와 한여름의 더위, 열대야를 이겨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쓰촨성 출신 50대 도급반장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집단임대주택에 만족해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의 숙소는 어디든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이런 일반 주택은 보온단열공사가 되어 있어서 대낮에도 시원하니까 공사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공사현장의 숙소는 합판이어서 문을 열기만 해도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상대적으로는 낫다고 해도 집단임대주택 또한 많은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위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집단임대주택은 건설아파트와 비교해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거실부터 침실까지

대부분의 공간이 이층침대로 채워지고 많게는 한 집에 20여 명이 생활한다. 육체노동을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더위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해 다음 날의 벌이에도 지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함께 거주하는 인원 수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더위를 견디다 못해 중간에 작업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폭염이 장기화되면 일부 노무회사에서는 집단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건설노동자들에게 집단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사용에 있었다. 도시 가스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로운 전기 사용으로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건설아파트와 공사현장의 숙소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이다. 집단임대주택에서는 도급반장이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직접 전기냄비를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개 온수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들은 씻기 위해 물을 데우는 데에도 전기를 이용하였다. 휴대폰 충전도 손쉬워졌다.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에서 전기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집단임대주택은 노무회사와 도급반장이 노동력을 관리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여성 건설노동자 귀잉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쓰촨성 출신의 50대 콘크리트공인 귀잉은 다른 여성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집단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숙소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것은 호통을 치고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 앞에는 옷통을 벗은 남성 세 명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란히 이층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귀잉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통 치는 남성이 큰 사장(大老板)으로 불리는 노무회사 관계자이며 작업 중에 있었던 실수로 혼내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씻기 위해 큰 전기솥으로 물을 끓이기 시작하였다. 이 숙소의 화장실에는 온수기는 물론 세면대도 없었고 화변기만 조악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임시변통으로 벽면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전구를 사용하였다.

집단임대주택에서는 부부 건설노동자에게 별도의 공간이 주어진다. 다른 노동자들은 빼곡히 놓인 이층침대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부부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방이 배정되더라도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에 칸막이를 두고 두 쌍의 부부가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하기도 하였다. 귀잉 부부

에게도 별도의 공간이 주어졌지만 본래 주방으로 설계된 곳이었다. 나무판자로 간단히 만든 침대 주변으로 각종 배관과 옷가지, 세간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고, 입구에는 방문 대신에 천이 둘러져 있었다. 이 숙소에는 거실과 침실을 합해 총 9개의 이층침대가 놓여 있었지만 7명이 생활하였다. 며칠 전에 일부 인원이 작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남은 인원도 며칠 후에는 떠날 계획이었다. 본래 이들도 앞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도급반장으로부터 잔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귀향길의 기차표를 사 주는 조건으로 며칠 더 머무르게 된 것이었다.

일반 주택이라면 텔레비전이 놓여 있을 거실 벽면에는 각종 조리도구와 식재료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숙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냉장고가 있었다. 귀잉은 같은 쓰촨성 출신으로 이 콘크리트공팀을 이끄는 작은 사장(小老板)인 도급반장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숙소는 노무회사가 임대하여 배정한 것이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노무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다. 다만 노동자들의 매끼 식사만큼은 같은 쓰촨성 출신인 작은 사장이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그린타운에서만 3년간 작업해 온 이 콘크리트공팀 또한 얼마 전까지 공사현장의 생활구역에서 거주하였다. 식사 또한 생활구역 내의 식당에서 매끼 10~12 위안을 주고 개별적으로 구입해 해결하였다. 하지만 공사현장 내 숙소가 철거되면서 집단임대주택으로 옮겨 온 후에는 전기를 이용한 취사가 가능해졌다. 덕분에 도급반장이 쓰촨성 출신 노동자들의 입맛에 맞게 직접 요리를 해서 제공하게 되었다. 귀잉은 이 식사비용도 정산할 때 임금에서 제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먹는 식사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직접 해 먹는 것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사먹는 것보다는 푸짐하고 입맛에 맞다고 흡족해하였다. 이처럼 식사제공은 말단 도급반장 층위에서 노동력을 관리하는 한 방식이었다. 집단임대주택에서 일부 도급반장들은 노동자의 식사만을 전담하는 동향 출신 요리사를 별도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가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전기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은 다른 숙소와 비교해 집단임대주택이 가진 큰 장점이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내장공사가 안 된 주택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인 주거조건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간 도시지역에서 경험해 온 황

씬 열악한 주거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미 수도와 전기도 끊긴 철거를 앞둔 주택에서 거주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미완성 주택이어도 이미 괜찮은 조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이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쉬는 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대다수가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자주 청소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미완성 주택은 오히려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하루는 헤이룽장성 출신의 53세 건설노동자 리천이 작업을 하다 허리를 조금 다쳤다면서 연구자에게 말을 건넸다. 리천은 얼마 전까지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바로 그린타운으로 와서 작업을 이어 가고 있었다. 본래도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건설 일도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이어 갔다. 하지만 딸이 대학을 졸업해야 자신의 임무도 끝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최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두 딸을 혼자 키워 왔으며, 건설노동으로 번 돈은 최대한 아껴 대학생인 작은 딸에게 거의 모두 보낸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이 저학력자인 건설노동자들은 자녀가 높은 교육수준을 토대로 자신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리천 또한 자녀의 상하이동을 위한 교육 지원을 부모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리천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담배도 이런 것을 피고 있다며 손에 든, 종이로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를 가리켰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이 있는 도시지역은 가족이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돈벌이를 하는 곳일 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삶은 작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로 유예되고 있었다. 가족이 모두 외지에 나와 있어 집이 없는 느낌이라던 철근공 양원은 당장은 고생스러워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향 마을로 돌아가 편히 쉬고 놀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집단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25세 건설노동자 루양은 “내장공사도 안 된 주택이라 딱히 조건(条件)이라고 할 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돈벌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머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할 곳만 있으면 되고 아쉬운 대로 그러저럭(凑合) 지내면 된다.”라는 것이었다.

2. 농민공과 토지도시화

쓰촨성의 고향 마을로 돌아간 후 영상통화로 만난 귀잉은 그린타운에서 줄곧 보아 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노란 안전모와 허름한 옷차림, 온몸이 흙과 땀에 젖어 있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 차림의 귀잉은 영상을 통해 새로 이사한 주택 곳곳을 보여 주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여느 중산층 상품주택 아파트와 다를 바 없이 꾸며진 이 주택은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제공한 재정착아파트였다. 농촌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으로 새로 건설한 6층짜리 저층아파트의 주택을 분양해 준 것이다. 농촌주택이 자리하였던 토지를 집중시켜 대규모 영농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지만 언제쯤 개간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귀잉 부부는 본래도 농사를 짓지 않고 분배 받은 토지를 버려 두어 왔기 때문에 당장은 주거형태의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 주택은 귀잉 부부가 그린타운의 건설공사 작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내장공사와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린타운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도 귀잉 부부는 휴대폰에 보관된 새 집의 사진을 보여 주며 농촌주택에는 없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고 관리회사의 관리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는 하였다.

귀잉 부부와 달리 경작을 지속해 온 노동자들은 고향에서 전개되는 토지개발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를 표하였다. 허난성 출신의 미장공인 47세 장커의 고향 마을과 주변 지역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었다. 해마다 새로운 개발 계획이 등장하는 데다 어떤 마을은 갑자기 사라지고 몇 개의 마을은 하나로 합병되는 과정(拆村并村)이 진행되어 왔다. 얼마 전에는 장커의 마을과 관련한 계획도 공표되어 곧 시행이 될 예정이다. 집체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마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3년 내에 새로이 건설될 재정착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사한 후에는 농사도 짓기 어려워요. 토지는 국가가 집체를 통해 영농기업 같은 데에 하도급(承包)을 줄 거래요. 농민들에게는 토지 1무(亩) 당 몇 백 위안의 보조금도 주고 능력이 있으면 기업에서 일하며 돈벌이(打工)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계속 외지로 나와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커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귀잉 부부와는 다른 의미에서 건설노동을 지속 하는 계기로 경험하고 있었다. ‘농민의 아파트 이주(农民上楼)’로도 지칭되는 이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토지중심 도시화의 한 형태다(周飞舟·王绍琛, 2015). 많은 지방정부들이 토지의 증감연계(增减挂钩) 정책¹⁰에 따라 농촌주택의 부지인 택지(宅基地)를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농민들에게 도시형 아파트 주택을 공급해 왔다. 이 주택에는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사용과 농촌 근대화라는 명분이 부여된다. 다만 주거형태 변화와 경작지와와의 거리로 농민들이 경작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지방정부들이 경작지를 집중시켜 기업과의 토지사용 계약을 통해 영농규모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토지개발 전략은 일부 농민들에게 이주노동과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Yep and Wu, 2020: 385).

하지만 보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국가의 토지중심 도시화 전략을 출신 지역 현지에서 도시 외곽이나 소도시의 상품주택을 매개로 경험하고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고향 마을 인근 상품주택 아파트의 소유권은 자녀의 교육과 함께 건설현장이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예하며 고된 건설노동을 이어나가게 하는 삶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하고 있었다.

허베이성 랑팡시 출신으로 40대 후반의 내장공 레이광은 가족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고향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 마을 인근 도시지역에 구입해 두었던 신축 상품주택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어 열쇠를 받으러 간 것이었다. 물론 당장은 레이광의 가족 누구도 그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할 계획이 없었다. 향후에 큰아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하여 신혼집으로 장만해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이징시에서 일하는 큰아들이 그 집을 실제 사용하게 될지는 레이광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향후에 아들이 랑팡시 출신의 여

¹⁰ 부동산 개발이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용지가 필요한데 기존의 도시 건설용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농촌의 농업용지를 수용하여 중앙정부의 비준을 거쳐 건설용지로 용도를 전환해 왔다. 이때 중앙정부는 식량안보와 경작지 보호를 위해 농업용지의 총 규모가 유지되도록 관할지역 내에서 추가되는 도시 건설용지 규모에 상응하는 새로운 경작지 개발을 요구해 왔다. 경작지 개간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토지가 바로 농촌 주민들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택지, 즉 농촌의 건설용지다. 도시의 건설용지 증가와 농촌의 건설용지 감소가 연계되어 온 것이다.

성과 혼인하여 그 집에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내비칠 뿐이었다. 그럼에도 레이광은 이 주택이 자녀의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자식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큰아들에게는 이미 아파트를 사 줬으니 둘째 아들에게도 아파트를 사 주면 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도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 계약금(首付)을 내주기 위해서예요. 계약금만 내주면 대출금은 스스로 갚아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그린타운의 건설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레이광처럼 고향 마을과 가까운 도시 지역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개혁 초기에 농민들이 이주노동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것이었다(Sargeson, 2002).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농촌주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밝힌 도시주택 구입의 직접적인 목적은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혼을 하려면 도시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공유되고 있었다. 젊은 노동자들은 남성의 경우에 도시 아파트의 소유권은 결혼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20대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해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도시주택은 상하이동과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으로도 인식되고 있었다.

2000년대 이래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화 전략은 도시의 영토적 확장과 공식적인 도시인구의 성장이라는 두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 토지개발 중심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는 이농인구인 농민공 집단의 도시 정착을 포함하는 인구도시화(人口城镇化)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周飞舟 外, 2018).¹¹ 하지만 지방국가 층위에서 두 과정은 결합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Andreas and Zhan, 2016).

¹¹ 국가신형도시화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 2014-2020年) 참조.

농촌 토지는 부동산 개발이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부지로, 토지에서 분리된 농촌 인구는 내수 확대의 기반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Chuang, 2020: 3). 이 도시화 전략에는 호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호구개혁과 함께 현정부 소재지(县城)¹²나 현급시(县级市) 같은 소도시 지역에서 농민공들이 주택을 구입하여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왔다. 지역에 따라 농민공들에게 일정 기간 신축 상품주택 아파트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고,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많은 농민공들이 새로운 주택 투자자로서 고향 마을 인근의 소도시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해 왔다(Zhan and Tong, 2018: 252).

하지만 농민공들의 도시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에서 호구개혁은 그린타운의 건설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은 도시주택의 소유와 도시 호구로의 전환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특히 노동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소도시 지역에서는 농민공들의 도시 호구 획득이 용이해졌고, 심지어 지방정부에 의해 독려되고 있음에도 호구 이전에 대한 열망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후베이성 출신의 30대 건설노동자는 고향 마을 인근 도시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미 그 주택에 아내와 딸을 포함한 세 식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호구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시 호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다른 건설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던, 도시 호구에 비해 “농촌 호구의 실질가치가 높다(农村户口含金量高)”는 말에 공감하였다.

호구가 고향 마을에 있으니 여전히 농민일 수 있는 거예요. 농민이어야 나중에 토지가 수용될 때 돈을 조금이라도 받죠. (도시지역으로) 호구를 이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농업보조금과 이웃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도 사라져요.

¹² 현정부 소재지는 농촌과 접하지만 도시지역의 특징을 보여 흔히 도시의 말단이자 농촌의 시작점(城尾乡头)으로 묘사된다. 최근에는 농민의 인근도시화(就近城镇化)와 도농융합발전,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발전거점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李强 外, 2015). 2022년에 중공중앙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현정부 소재지를 중요한 매개로 하는 도시화 건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关于推进以县城为重要载体的城镇化建设的意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린타운에서 만난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농촌 호구에 대해 변화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중국의 농민들에게 도시민 신분과 혜택을 보장하는 도시 호구는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다. 연구자들 또한 호구체계에 따른 농민 신분을 도시민에 비해 언제나 주변적이고 불리한 신분으로 전제해 왔다(Solinger, 1999). 하지만 본 연구의 건설노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듯이 최근 연구들은 농민 공들이 도시 호구를 선호하는 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오히려 농촌 호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Chen and Fan, 2016; Hao and Tang, 2018). 확대된 토지개발로 농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기대되는 상황은 건설노동자들이 토지 권리를 보장하는 농촌 호구에 가치를 부여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도시주택을 통해 도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상당 부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중요한 변화다. 농민공들에게 도시주택의 소유권은 각종 도시 인프라와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다. 즉, 건설노동자들에게 출신 지역 현지에서 도시 아파트 소유권은 도시 호구를 대신하여 상향이동과 도시 시민권 혜택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 건설노동자들의 이동성의 실천에서 도시주택은 기존의 도농이원구조에 새로운 공간적 차원을 더하고 있다(Zhan, 2015). 기존에 농민공들의 분할된 공간 실천은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노동력의 사용과 재생산,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형태를 띠어 왔다(任焰·陈菲菲, 2015). 하지만 호구는 여전히 농촌 마을에 두고 외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고향 인근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주택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사례는 이주노동체계를 구성하는 공간 실천의 구조가 보다 복잡해졌음을 보여 준다.

건설노동자들에게 도시주택이라는 목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는 요소였다. 이 목표는 건설노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예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아쉬운 대로 그럭저럭”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무엇보다 노동력으로서만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도시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 다만 투자자로서 건설노동자들의 참여는 위계적인 도시 체계하에서 주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90년대의 주택개혁 이래 상품주택을 중심으로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실천되어 온 “계급의 공간화”(Zhang, 2010: 3)는

다양한 층위에서 위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시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직할시에서 지급시(地級市), 현급시로 이어지는 다층의 위계적인 도시체계는 시민권의 위계만이 아니라(陳映芳, 2018), 주택 가치에 토대한 사회경제적 위계 또한 형성해 왔다.

건설노동자들은 고향 마을 인근 소도시의 주택에 대해 고향과의 연계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진술했다. 동시에 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저렴한 소도시 아파트가 지불 가능한 거의 유일한 도시주택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한계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직접 건설에 참여한 그린타운의 상품주택에 대해서는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買不起), 자신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치(奢侈)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소도시 아파트를 포함한 도시주택은 물론 도시생활 자체가 농민공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진술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결국 제한된 경제적 자원과 지불 능력으로 소도시 주택에 한정되어 온 접근 가능성은 건설노동자들의 도시화 경험도 한계지어 왔다. 레이광이 고향 인근의 도시주택을 통해 자녀의 더 나은 생활을 상상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이 실제 그 주택을 사용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현실은 그 한계의 일면을 보여 준다.

V. 맺음말

그린타운 정부의 건설아파트는 비록 기존에 경제개발구나 산업단지의 주거 공급 형태와 유사성을 갖지만 적어도 계획 면에서는 포용적인 성격이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외부의 열악한 주거장소는 유지되고 있었다.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사적 임대와 비하면 주거장소의 선택에서 건설노동자 개인의 선호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숙사노동체제 개념에 전제되어 오던 통제와 저항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농민공들의 다양한 일상적인 주거 경험을 간과하게 한다. 연

구자들은 도시 계획은 언제나 현실과는 괴리가 발생하며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해 왔다(Abram and Weszkalyns, 2013). 건설아파트의 계획 또한 이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이 보다 강조하고자 하였던 지점은 개선과 향상을 위한 필요와 관련하여 계획가들과 노동자들 간에 상이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도급반장을 포함한 건설노동자들은 오히려 건설아파트와 비교하여 공사현장의 열악한 숙소를 선호하기도 하였으며 내장공사도 안 된 집단임대주택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건설아파트에서는 통제되어 오던 전기 사용이 집단임대주택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은 건설노동자들에게 큰 장점이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취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휴대폰 충전 같은 일상의 필요도 손쉽게 충족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외부의 열악한 주거조건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건설노동자들에게 주거장소의 위생 상태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조건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기대하거나 열악한 주거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대응을 유예라는 삶의 전략이자 존재의 경험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높은 이동성과 강도 높은 노동이 만들어 내는 건설노동자들의 유예 상태는 일터가 있는 도시지역에서 현재와 일상적인 삶을 임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도시 확장과 부동산 개발, 영농 규모화 사업의 형태로 구현되어 온 중국 국가의 토지중심 발전 전략은 건설노동자들에게 모순적인 효과를 낳고 있었다. 도시주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은 도시 상품주택에서의 생활과 그 소유권이라는 목표를 통하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였다. 이 목표는 이주노동을 지속하며 유예의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으로도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이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예하며 집중적인 노동을 이어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 왔다. 하지만 호구개혁과 관련하여서 노동자들은 농촌 호구를 통하여 토지 권리와 고향 마을과의 연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고향 마을과 도시의 건설현장, 소도시 지역으로 한 층 복잡해진 공간 실천의 지형에서 삶의 방식으로서 유예는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위계적인 도시체계하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도시주택에 대한 접근과 투자자

로서 도시발전 참여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과 지불 능력으로 소도시 지역에 한정되며 주변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 자신이 직접 건설에 참여하기도 한 대도시의 상품주택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미래라는 점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조차 배제되거나 스스로의 주변적인 사회경제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경험되고 있었다.

투고일: 2023년 2월 16일 | 심사일: 2023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3일

참고문헌

- 윤중석. 2017. “베이징은 어떤 시민을 원하는가?: 외래인구 사회관리와 2017년 ‘저단인구’ 퇴거 사건.” 『사회와 역사』 116, 53-94.
- 贺雪峰 著. 김도경 옮김. 2017.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농민공 문제와 중국 사회』. 파주: 돌베개.
- 陈映芳. 2018. ““市民化”与“国民化”: 审视中国城市化困局.” 『文化纵横』 2, 40-47.
- 郭宇宽. 2011. ““包工队”模式再认识: 合约性质、制度约束及其利益相关者.” 『开放时代』 6, 132-141.
- 黄岩·朱少瑞. 2021. “管理控制抑或企业福利: 宿舍劳动体制的再思考.” 『华南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3(3), 78-85.
- 李君甫·许多. 2018. “农民工的居住方式与过度劳动研究.” 『社会学研究』 286(9), 36-45.
- 李强·陈振华·张莹. 2015. “就近城镇化与就地城镇化.” 『广东社会科学』 1, 186-199.
- 刘梦琴·傅晨. 2013. “城市农民工的住房问题与改革政策.” 『城市观察』 4, 136-145.
- 陆文荣·段瑶. 2019. “居住的政治: 农民工居住隔离的形成机制与社会后果.” 『中国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36(2), 44-58.
- 潘毅·卢晖临·张慧鹏. 2009. “分包体制下建筑工人的阶级经验和感情.” 『中国研究』 2, 109-127.
- 任树正·江立华. 2017. “建筑业包工头: 农民工的关系形态和行动策略—基于某地铁建筑工地调查.” 『社会科学研究』 1, 115-120.
- 任焰·陈菲菲. 2015. “农民工劳动力再生产的空间矛盾与社会后果: 从一个建筑工人家庭

- 的日常经验出发.”『兰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43(5), 10-21.
- 任焰·贾文娟. 2010. “建筑行业包工制: 农村劳动力使用与城市空间生产的制度逻辑.”『开放时代』12, 5-23.
- 任焰·潘毅. 2006. “宿舍劳动体制: 劳动控制与抗争的另类空间.”『开放时代』3, 124-134.
- 元昕. 2011. 『欠薪与讨薪: 工地政体与劳动过程的实证研究』. 北京: 首都经济贸易大学出版社.
- 周飞舟·王绍琛. 2015. “农民上楼与资本下乡: 城镇化的社会学研究.”『中国社会科学』1, 66-83.
- 周飞舟·吴柳财·左雯敏·李松涛. 2018. “从工业城镇化、土地城镇化到人口城镇化: 中国特色城镇化道路的社会学考察.”『社会发展研究』1, 42-64.
- Abram, Simone and Gisa Weszkalyns. 2013. *Elusive Promises: Plann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New York: Berghahn Books.
- Andreas, Joel and Shaohua Zhan. 2016. “Hukou and Land: Market Reform and Rural Displacement in China.”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3(4), 798-827.
- Chan, Kam Wing and Yanning Wei. 2019. “Two Systems in One Country: The Origin, Functions, and Mechanisms of the Rural-Urban Dual System in Chin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60(4), 422-454.
- Chen, Chuanbo and C. Cindy Fan. 2016. “China’s Hukou Puzzle: Why Don’t Rural Migrants Want Urban Hukou?” *The China Review* 16(3), 9-39.
- Cho, Mun Young. 2009. “Forced Flexibility: A Migrant Woman’s Struggle for Settlement.” *The China Journal* 61, 51-76.
- Chuang, Julia. 2020. *Beneath the China Boom: Labor, Citizenship, and the Making of a Rural Land Market*.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o, Pu and Shuangshuang Tang. 2018. “What Keeps China’s Floating Population from Moving?” *Chinese Journal of Sociology* 4(1), 30-55.
- Huang, Youqin, and Ran Tao. 2015. “Housing Migrants in Chinese Cities: Current Status and Policy Design.” *Environment and Planning C* 33, 640-660.
- Huang, Youqin, and Jianyu Ren. 2022. “Moving toward an Inclusive Housing Policy?: Migrants’ Access to Subsidized Housing in Urban China.” *Housing Policy Debate* 32(4-5), 579-606.
- Huang, Youqin and Chengdong Yi. 2015. “Invisible Migrant Enclaves in Chinese Cities: Underground Living in Beijing, China.” *Urban Studies* 52(15), 2948-

2973.

- Ling, Minhua. 2021. "Container Housing: Formal Informality and Deterritorialised Home-making Amid Bulldozer Urbanism in Shanghai." *Urban Studies* 58(6), 1141-1157.
- Morris, Carwyn. 2022. "Spatial Governance in Beijing: Informality, Illegality and the Displacement of the "Low-end Population". " *The China Quarterly* 251, 822-842.
- Pun, Ngai. 2016. *Migrant Labor in China: Post-Socialist Transformations*. Cambridge: Polity.
- Pun, Ngai and Huilin Lu. 2010a. "Neoliberalism, Urbanism and the Plight of Construction Workers in China." *World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1), 127-141.
- _____. 2010b. "A Culture of Violence: The Labor Subcontracting System and Collective Action by Construction Workers in Post-Socialist China." *The China Journal* 64, 143-158.
- Pun, Ngai and Yi Xu. 2011. "Legal Activism or Class 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o Boss" and "No Labour Relationship" in China's Construction Industry." *China Perspectives* 2, 9-17.
- Ren, Yan and Pan Yi(Pun Ngai). 2009. "The Absence of State Role in the Labor Reproduction of Migrant Workers." *Chinese Sociology and Anthropology* 42(1), 51-77.
- Sargeson, Sally. 2002. "Subduing "The Rural House-building Craze": Attitudes towards Housing Construction and Land Use Controls in Four Zhejiang Villages." *The China Quarterly* 172, 927-955.
- Smith, Chris. 2003. "Living at Work: Management Control and the Dormitory Labour System in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0(3), 333-358.
- Smith, Chris and Ngai Pun. 2006. "The Dormitory Labour Regime in China as a Site for Control and Resist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7(8), 1456-1470.
- Solinger, Dorothy J. 1999. *Contesting Citizenship in Urban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wider, Sarah. 2015. *Building China: Informal Work and the New Precariat*. Ithaca:

- Cornell Press.
- Xiang, Biao. 2017. "Hundreds of Millions in Suspension." *Transitions: Journal of Transient Migration* 1(1), 3-5.
- _____. 2021. "Suspension: Seeking Agency for Change in the Hypermobile World." *Pacific Affairs* 94(2), 233-250.
- Yep, Ray, and Ying Wu. 2020. "How "Peasant Apartments" Could Undermine Rural Governance in China: Spatial Realignment, Moral Reconfiguration and Local Authority." *The China Quarterly* 242, 376-396.
- Zavoretti, Roberta. 2017. *Rural Origins, City Lives: Class and Place in Contemporary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Zhan, Yang. 2015. "'My Life is Elsewhere': Social Exclusion and Rural Migrants' Consumption of Homeownership in Contemporary China." *Dialect Anthropology* 39, 405-422.
- Zhan, Yang and Xiaoxi Tong. 2018. "A Neoliberal Strong State: Rural Migrants, Informality, and State (De)regulation In Contemporary China." *Urban Anthropology* 47(3-4), 225-258.
- Zhang, Li. 2010. *In Search of Paradise: Middle-Class Living in a Chinese Metropoli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Suspension of Housing in the City: Construction Workers and Migrant Housing Conditions in China

Hae Young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highlights the dynamics of persisting migrant workers' poor housing conditions in the city and is based on field research at a new town project in suburban Tianjin, China. Scholars have emphasized that migrant workers' poor housing conditions are material embodiments of their marginalized positions in the city with the persistence of the *hukou* system preventing the migrants from access to public services. While the new town government has provided public dormitories for improving living conditions for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ir rough renting residence outside has been maintained in the new town. I argue that the state of suspension of migrant workers is rather important for reproducing their housing conditions in the city. Construction workers, as transient migrants who keep moving and conduct intensive labor, are not concerned about better living conditions in the urban areas where their construction sites are located. The workers prefer the rough housing conditions in the city for their convenience of the intensive use and efficient daily reproduction of their labor for the sake of their imagined better future. The recent land-centered development, which triggers the construction boom in China, also shapes their conditions of suspension in the city with their imagined future around pursuing urban home ownership near their hometown.

Keywords | Chinese construction workers, migrant housing, suspension, dormitory labor regime, land-centered development